

조선통신사

JOSEON TONGSINSA JOURNAL · AUTUMN 2015 가을호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601-80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744-7707 F. 051-744-7708~9
www.tongsinsa.com



가을

사진 | 밀양 영남루(嶺南樓) 침류각(枕流閣)
출 처 |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한태문 교수 개인 소장

밀양 영남루 침류각은 1624년 제3차 통신사 부사(副使) 강홍중이 묵었던 곳이다. 영남루는 아름다운 풍광 덕에 사행원들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은 역사경관이다. 그리고 영남루에는 조선 후기 통신사의 시판이 남아 있다. 1655년 통신사 사행의 정사 조형(趙衍)이 읊은 7언 율시와 바로 그 곁에 조형의 5세손 조종진(趙宗鎭)의 차운시가 있고, 맨 뒤엔 6세손 조운한(趙雲漢)의 글씨를 썼다고 적어두고 있다. 전국적으로 누각에 남아 있는 통신사의 시판으로는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 한태문, 『조선통신사의 길에서 오늘을 묻다』 p327~p328(경진, 2012)



조선통신사

JOSEON TONGSINSA JOURNAL · AUTUMN 2015 가을호

CONTENTS

- 권두칼럼** 04 **믿음으로 통한다(通情)**
국회 정무위원장 | 정우택
- 성신교린** 06 **400년의 시간을 넘어 “이에야스공의 정신을 계승하다~ 조선통신사~”**
시즈오카시 부시장 | 코나가야 시게유키
- 통신사 24時** 10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
부산문화재단 국제협력팀
- 기획특집** 14 **부산훈도, 금곡鎭谷 현덕윤玄德潤에 관하여**
일본 도시샤 여자대학 명예교수 | 노부하라 오사무
- 조선통신사 이야기** 18 **1811년 ‘대마도 역지통신’과 바꾼 조선 역관의 운명**
부산대 사학과 교수 | 김동철
- 21C 조선통신사** 22 **2015 시모노세키 바칸 마쓰리 참가 후기**
어린이 통신사 | 김승현
브니엘 예술고등학교 | 신정민
일반 참가자 | 김충명
- 최화수의 문화읽기** 28 **‘최초의 한류’ 콘텐츠, 마상재馬場才**
봉생문화재단 부이사장 | 최화수
- 조선통신사 NEWS** 30 **조선통신사역사관 뉴스**
부산문화재단 국제협력팀
- 그림으로 찾아가는 조선통신사** 31 **에도막부 쇼군이 선물한 병풍, 조선왕실을 매료시키다**
부경대 사학과 교수 | 박화진



〈표지 설명〉

사 진 | 스푸성(驍府城)
출 처 | 문진우 사진작가 개인 소장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1585년 지은 성으로 어린 시절 이마가와 가문에 인질로 잡혀있던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전국 시대를 종식시키고 에도(江戸)에 막부(幕府)를 연 이에야스는 2년 만에 소군(將軍)직을 그의 아들 도쿠가와 히데타다(徳川秀忠)에게 물려주고 이곳 스푸성으로 오게 되었다. 비록 쇼군직은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었지만, 여전히 실권은 거머쥔 채로 그는 이곳에서 일본을 다스렸다. 그의 권위에 걸맞게 이곳 스푸성도 이에야스가 머물던 시절 대대적인 개축이 진행되어 매우 화려한 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많은 부분이 소실된 상태이다.

발행일 2015. 10. 28 **발행인** 이문섭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el 051-744-7707
편집위원 최화수(편집주간), 한태문, 김동철, 박화진, 이철호, 백태현
편집기획 국제협력팀 Tel 051-744-7707 www.tongsinsa.com
디자인·제작 두손컴 Tel 051-805-8002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자료를 재사용하려면 (재)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조선통신사 저널은 부산문화재단 및 조선통신사문화사업 홈페이지에서 웹진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선통신사 저널은 부산광역시 2015년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통한다(通信)

信賴で通じ合う(通信)



정우택 · 국회 정무위원장
鄭宇澤 · 国会 政務委員長

朝鮮通信使の「通信」は「信賴で疎通する」という意味であると思う。友人関係であれ夫婦関係であれ、あるいは師弟関係であれ、人々の間に信賴さえあれば乗り越えられないものはない。日韓国交正常化50周年を迎え、信賴で疎通した朝鮮通信使の精神を改めてかえりみる。そして信賴を基にした文化と政治の交流を通じて両国間のより発展的で且つ暖かい未来を夢見る。

가을이다. 높고 공활한 하늘, 한해가 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선선한 바람, 여름의 별과는 사뭇 다른 따사로운 햇살에 사색하기 참 좋은 계절임을 느낀다. 이렇게 좋은 가을 날, 부산문화재단의 발간자료 '조선통신사 소식지'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다. 이번 가을호 책자에는 조선통신사의 행적과 관련하여 또 어떤 아름다운 전경 사진이 실릴지 내심 기대가 되기도 한다.

필자는 현재 한일의원연맹(韓日議員聯盟)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한일의원연맹 산하 조선통신사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한일 양국의 국회와 정부는 예로부터 그 형태와 운영실태에 유사한 점이 많았다. 특히 50년 전인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맺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간 교류가 확대 및 발전돼 왔고, 양측 국회와 국회의원간의 공적·사적인 교류도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다. 그렇기에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의 의미가 더욱 깊다고 하겠다. 한일수교 이후 1972년 양국 국회의원은 한일의원간친회를 발족하였고, 합동회의를 개최하면서 양국의 제

반 현안과 의원교류문제 등을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한일의원연맹이 설립된 것이다.

한일의원연맹은 오늘 날까지 양국은 물론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현재 필자가 맡고 있는 한일의원연맹 산하 조선통신사위원회는 조선시대 일본의 막부에 파견돼 한일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했던 조선통신사의 선례를 거울삼아 경색된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로 발족되었다. 2006년 4월, 조선통신사의 일본방문 경로였던 서울 종로, 안동, 경주, 부산 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야의원 21명의 참여를 시작으로, 양국간의 다양한 행사와 교류회에 참석하며 소통하고 있다. 여담이지만 필자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일본어를 공부하며,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와 양국간의 교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한일의원연맹은 조선통신사위원회를 포함한 총 8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은 양국을 번갈아 가며 총회를 개최하고, 각종 의미있는 행사와 산하위원회 의를 개최하여 정치적 쟁점사항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특히 우리와 일본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독도문제,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 위안부 문제 등이 그 단적인 예일 것이다. 이에 한일의원연맹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통한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일본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명심보감에서는 '원친불여근린'이라 했던가. 우리는 풀어야 할 과제들을 한켠에 두고 서로 어려울 땐 힘이 되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되기도 한다. 몇 해 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는 한국 의원들이 고통받는 일본 국민을 위해 성금을 모아 기탁했다. 올해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때에는, 메르스에 대한 우려의 분위기 속에서도 일본 의원들이 한국을 직접 방한해 9년 만에 '한·일 국회 의원 친선 촉구대회'를 열어 양국의 화목과 건강을 기원하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조선통신사의 정신과 열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정치를 통해, 예술인은 문화를 통해, 학자는 학문을 통해 선린외교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의 '通信'은 '믿음으로 소통한다'는 뜻이라 생각한다. 친구사이건 부부사이건, 또는 사제지간이건, 사람과 사람간의 믿음이 있다면 헤쳐 나가지 못할 것이 없다.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믿음으로 소통했던 조선통신사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 본다. 그리고 믿음을 바탕으로 한 문화와 정치의 교류를 통해 양국간의 더 발전적이고 따뜻한 미래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한일 민간문화교류 추진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가치를 재고하기 위해 면면히 노력해주고 계시는 부산문화재단에 마음깊이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글을 마친다.

400년의 시간을 넘어 “이에야스공의 정신을 계승하다~ 조선통신사~”

400年の時を超えて
「家康公の想いをつなぐ~朝鮮通信使~」



코나가야 시게유키 · 시즈오카시 부시장
小長谷 重之 ·静岡市副市長

静岡市は、徳川家康公薨去400年の節目の年に、家康公とかかわりの深い平和と友好の歴史である朝鮮通信使の意義と精神を再び甦らせ、継承して行くための関連事業「家康公の想いをつなぐ~朝鮮通信使~」を釜山文化財団協力のもと本年9月中心に実施した。韓紙人形展・再現行列・文化交流公演等様々な事業により観客、参加者にとって心に残るイベントとなったことを確信したとともに今後も朝鮮通信使を素晴らしい教科書として、また市民が誇れる文化遺産として、より多くの人々や次世代に意義や精神を伝え、郷土に誇りを持って未来へと歩んで行きたいと考えている。



시즈오카 시즈오카시 부시장 환영만찬회



1607년 슌푸성(駿府城)에 입성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공(徳川家康公)은 일본과 조선(朝鮮)의 국교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위한 제1회 사절단을 슌푸(駿府)(현재의 시즈오카시(静岡市))에서 맞이하였습니다.

시즈오카시는 이에야스공이 유소년 시절, 토카이 5개국 센코쿠 다이묘(東海五ヶ国戦国大名) 시절, 오고쇼(大御所) 시절 세 시절에 걸쳐 생애 3분의 1 이상을 보낸 땅(생애 가장 오래 살았던 도시)임과 동시에 평화를 기원했던 75년의 생애를 마감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전승, 전통공예품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산업, 차(茶) 등 이에야스공과 인연이 깊은 지역 자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이에야스공이 서거(逝去)하고 사백년이 되는 해로, 시즈오카시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해이기에, 시내(市内)에서는 「이에야스공 400년 축제」를 진행하며 다양한 현장사업이 1년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중점을 둔 현장 테마가 이에야스공의 평화외교입니다.

세키가하라 전투(関ヶ原の戦い)에서 승리한 이에야스공은 곧바로 소군직을 히데타다(秀忠)에게 넘기고 슌푸(시즈오카시)에서 은거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에도막부(江戸幕府)의 존속을 위해 슌푸에서 오고쇼 정치를 했다고 전해지며, 그 중 하나가 평화외교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시의 슌푸는 인구가 10만에서 12만이었을 것이라 추정되고, 에도(江戸)와 오사카(大阪)에 이은 대도시로, 외국 사절과 상인 등이 오가며 마치 일본 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외교를 상징하는 것이 조선통신사입니다.

조선통신사는 국서교환이 주된 역할이었지만, 일본 각지와 문화교류를 맺으며 다양한 문화를 일본에 전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 이에야스공이 원했던 「평화」와 「선린우호」는 이에야스공의 서거 이후에도 그의 뜻이 계승되었고, 약 200년간 총 12회에 걸쳐 사절단 파견이 계속되었습니다.

또 주목할 만 한 것은 에도막부가 선린우호의 정신으로 국서를 교환하고 지속한 것이 조선(朝鮮)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호의 역사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훌륭한 역사이며, 시즈오카시는 그 시작의 땅으로, 일본 국내에 있어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야스공 400년 축제의 목적은 단순히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야스공의 공적을 재발견하고 미래세대로 계승되는 것에 있습니다.



세이켄지(清見寺) 교류 세리머니



친서교환식



친서교환식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준비하는 모습

이예야스공 400년 축제에서 평화와 우호의 역사인 조선통신사는 특히 미래세대까지 계승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2년 전부터 사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5월에 열리는 조선통신사 축제를 주최하고 조선통신사 관련사업에 정통(精通)한 부산문화재단 여러분이 시즈오카시의 사업취지에 찬동(贊同)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격적인 교류나 협력에 의한 사업이 없었던 시즈오카시가 전면적이고 정력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부산문화재단의 협력으로 400년의 시간을 뛰어 넘어 조선통신사의 의의와 정신을 다시 되살리고 계승해 나가기 위한 관련사업 「이예야스공의 정신을 계승하다~ 조선통신사~」를 올해 9월 중심으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시미즈(清水)문화회관에서 「조선통신사행렬 한지인형전」을 개최했습니다. 이 인형들은 부산에서 활약중인 소향회(素香會) 모든 분들이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한일공동으로 등재하기 위해 등성행렬도(燈

城行列圖)를 바탕으로 약 4년 이상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던 것입니다. 한지로 만든 조선통신사 종이인형 약 1,000여 점을 빌려와 110m 길이로 전시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전시는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고 여러 차례 방문한 관람객들의 입소문을 통해 새로운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등 전시장은 아주 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조선통신사를 모르는 사람도 나라 전체의 일대 이벤트였던 웅장한 조선통신사 행렬에 당시 사람들이 느낀 놀라움과 같은 감정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9월 19일은 시즈오카시 중심가에서 예능단체의 거리공연, 이예야스공이 머물렀던 스푸성 공원에서 조선통신사의 행렬 재현과 친서교환식이 개최되었습니다. 행렬 재현에는 한국 배우 이종수 씨가 정사역할을 해주었고, 시민 150여 명이 화려한 통신사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일 예능단체 150여 명과 함께 총 300명이 스푸성 공원에서 퍼레이드를 진행하였으며 많은 시민들이 관람했습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행사가 끝난 후 참가자들에게 「이번 행사에 참가할 수 있어서 좋았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것이 아직까지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9월 21일은 시즈오카 시민문화회관에서 8개팀의 한일예술단체가 펼치는 한일문화교류공연이 개최되었습니다. 당일 개장 1시간 전부터 관람객이 길게 줄을 설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고, 천 명 이상의 관람객이 회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한



「조선통신사행렬 한지인형전」 개최

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탄생한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또한 시즈오카시도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고 공연이 끝난 후에는 타치바나고등학교 응원단과 관객이 하나가 되어, 부산에서 먼 곳까지 와주신 예술단(독시, 식스포인트,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예술단 시민취타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성원을 보내 주었고, 흥분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선통신사 관련사업은 관객과 참가자 모두에게 기억이 남는 이벤트가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선통신사의 역할과 의미가 조금이라도 기억으로 남아준다면 앞으로도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관계자 분들의 노력으로 조선통신사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가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탄력이 붙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입니다.

시즈오카시도 일본 측 「제이켄지(清見寺) 조선통신사 관계 역사자료(49점을 일괄)」 1권이 잠정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디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와 평화의 상징인 조선통신사를 공동작업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고, 상호간의 이해가 더욱 깊어질 뿐만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서 세계평화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예야스공과 조선통신사야말로 국제 평화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조선통신사를 배우고 평화와 우호의 역사를 조명하여 상호간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즈오카시는 조선통신사를 훌륭한 교과서로, 또 시민이 자랑 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게 그 의의와 정신을 전하여 내 고향의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산문화재단, 그리고 부산광역시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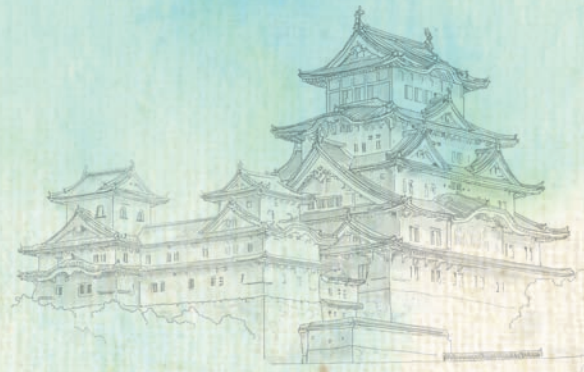


부산 시민취타대 거리공연 모습

50th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

日韓国交正常化50周年の朝鮮通信使の日韓文化交流



쓰시마 「이즈하라 미나토 마쓰리」 (対馬巖原港祭り)

2015년 8월 1일(토)~2일(일) 쓰시마에서 '이즈하라 미나토 마쓰리' 가 개최되었다. 2013년은 불상 도난 문제로, 2014년에는 태풍으로 인해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이 취소되었다. 올해는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며 행사 당일 까지 걱정하였는데 다행히 날씨가 맑았으며 무사히 행렬 재현을 할 수 있었다. 3년 만에 조선통신사행렬을 개최하게 되어 어느 해보다도 뜻 깊은 행사였다.

지난 5월 부산 '조선통신사축제' 에서 정사 역을 맡았던 배우 이민우 씨가 이즈하라 미나토 마쓰리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에서도 정사 역을 맡아 주었으며, 부사 역에는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태문 교수가 맡아 주었다. 부산 백양고등학교 취타대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300여명의 한일 참가자들의 행렬 재현이 시작되는 순간, 많은 쓰시마 현지 사람들과 한국 관광객들이 응원해주었다. 행렬 재현이 끝나는 지점에서 국서교환식이 진행되었으며 문화교류공연에서는 정신혜 무용단이 참가하여 조선통신사의 의미와 정신을 되새겼다.



50th



시모노세키 「바칸 마쓰리」 (下関馬関祭り)

2015년 8월 22일(토)~23일(일) 이틀간 개최되는 시모노세키 '바칸 마쓰리'에 부산시 관계자 및 부산문화재단, 부산지역 예술단(남산놀이마당,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무용부, 시민취타대, 동의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TAL), 어린이 통신사, 일반 참가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올해도 역시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과 부산·시모노세키 어울림공연이 개최되었으며, 부산과 조선통신사를 알리는 홍보부스도 운영하였다. 이번 행렬 재현에서 정사 역할은 부산광역시 김규옥 경제 부시장이 참가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또한,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를 위하여 '제6차 한일 공동 학술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매년 시모노세키 바칸 마쓰리가 개최되는 시기에 태풍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축제가 모두 끝나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날 오전에 태풍으로 인하여 배가 결항되어 이틀을 더 시모노세키에 머물러야 했다. 그래도 축제가 진행되었던 이틀간은 날씨가 아주 맑아 무사히 행사를 치를 수 있어 다행이었다. 태풍이 몰아쳤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더 머물면서 참가자 100여 명 모두 힘들었지만 시모노세키시 관계자와 모두의 협력에 의해 아무 사고 없이 돌아올 수 있었다.



시즈오카 「스푸천하태평 마쓰리」 (静岡駿府天下泰平祭り)

2015년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으로 뜻 깊은 한해이기도 하지만 시즈오카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서거 4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시즈오카시에서는 '스푸천하태평 마쓰리'를 개최하였다. 시즈오카시에서의 참가요청으로 부산문화재단에서 예술단들과 함께 축제에 참가하였다. 이번 축제는 9월 15일부터 시작하여 27일까지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기간 중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조선통신사 한지 인형 전시, 한일문화교류공연 행사가 개최되었다.

조선통신사 한지 인형 전시는 9월 15일 오픈식을 시작으로 9월 25일까지 선두호위·정사·부사·종사관·후미호위 부분의 인형 총 950여 점이 시미즈 시민문화회관 마리아트에서 전시되었고 아주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9월 27일 부리는 시미즈 좌어장(坐魚莊)에서 11월 8일까지 전시된다.

9월 19일 조선통신사 박물관 창고로 불리는 '제이켄지(淸見寺)'에서 행사를 알리는 교류세례 모니를 시작으로 조선통신사 행사가 시작되었다.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에서는 정사 역할을 배우 이종수 씨가 맡아주었고, 주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 조재현 영사가 부사 역할을, 재일본 대한민국민단 시즈오카현 지방본부 강재경 단장이 종사관 역할을 맡아주었다. 9월 21일에는 시즈오카 시민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일본 공연팀들과 부산에서 참가한 예술단들의 문화교류공연이 있었다. 부산에서는 록시, 식스포인트, 부산예술단, 부산시립무용단이 참여하여 아주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일본에서는 칸테라, 와자노카이, 타치바나 고등학교 응원단, 아와오도리 협회에서 참가하였다.

조선통신사 일본 연고도시 중 시즈오카와의 교류는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앞으로의 시즈오카시와 지속적인 교류 체계 구축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부산훈도, 금곡錦谷 현덕윤玄德潤에 관하여

釜山訓導、錦谷·玄德潤をめぐる

노부하라 오사무 · 일본 도시샤 여자대학 명예교수
信原 修 · 日本同志社女子大学名誉教授

歴史は、権力者や為政者の立場から語られることが多い。朝鮮通信使も例外ではない。かつて南楊州市郊外にあった釜山訓導・錦谷玄徳潤の旧墓地、一族と離れてひっそりと建つその佇まいが、それを物語る。彼は当時の政治レベルでは不条理な懲罰を受けた下僚だったが、一個の人間として、祖国朝鮮と隣国日本との交隣に果たした功績は大きい。朝鮮王朝期における、こうした中人たちの活躍と貢献に、もっと多くの研究の光が当てられることを期待したい。

其れ、日本、馬島のごときより還れば、橐装動に千金、輒ち昆弟に分与し、
以て知旧貧者に及ぶ。自ら窘乏するに至るも、憾むことなし。

(其自日本若馬島還 橐装動千金 輒分与昆弟 以及知旧貧者 至自窘乏 而無憾焉)

금곡(錦谷)은 일본 쓰시마[對馬]에 보내졌고, 귀국할 때마다 지급받은 거액의 돈을 모두 형제들과 오랜 벗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금곡 자신은 돈으로 곤란한 일이 생기더라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위의 비문은 18세기 초기에 활약한 부산훈도 금곡(錦谷) 현덕윤(玄徳潤 : 1676~1737, 자(字)는 도이(道以), 왜학수회가선(倭学教誨嘉善)) 묘갈비 비문의 일부이다. 그의 죽마고우인 정래교(鄭來僑 : 1681~1757, 호는 완암(浣巖), 중인(中人)시인이며 문장가, 승문원제술관(承文院製述官)가 찬술(撰述)한 이 비문은 현금곡(玄錦谷)의 청렴한 인품을 단적으로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다.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20에 있던 금곡(錦谷) 현덕윤(玄徳潤)의 묘갈비

이 묘갈비는 원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20 언덕에 있었다. 이 언덕의 일부는 천녕(川寧) 현(玄) 씨 일족의 기둥이었던 인물, 예를 들면 14대 현수겸(玄壽謙), 덕윤(徳潤)의 증조부, 15대 호(虎), 아버지 17대 한일(漢一), 또 15대 룡(龍)의 5대 후손 20대 상하(尙夏), 그의 아들 21대 심(深) 등이 잠들어 있는 남쪽에 큰 언덕과 배후에 배나무와 사과나무밭이 있는 작은 언덕으로, 18대 덕윤의 묘갈비는 이 작은 언덕의 경사면에 장남 태벽(泰璧 : 1698~1760, 의찰방)과 자손인 상호(尙祐 : 1732~72, 태벽의 장남)의 2기 사이에 조용히 서 있었다.

내가 이 주소를 알게 된 것은 당시 청주대학교 사학과 교수였던 김양수(金良洙) 선생의 논문 「조선전환기의中人집안활동-玄徳潤·玄采·玄楯 등 川寧玄氏 譯官家系를 중심으로-」(『東方學志』第102輯, 1998)에 의해서였다.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나 이 묘비명의 석문과 독해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의문이 남았다. 때문에 2000년 2월 13일 단국대학교 이재길(李載吉), 유춘희(柳椿姬) 선생 내외의 안내로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했다.

광대한 남쪽 언덕에 잠들어 있는 현 씨 일족의 비석들을 헤가질 때까지 1기씩 세심히 찾아보았으나 좀처럼 발견되지 않아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그때였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언덕 경사면에 돌장승, 공물대와 함께 세워진 묘비같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집어 보니 틀림없는 현덕윤의 묘갈비였다.

嘉善大夫行龍驤衛副
護軍玄公諱徳潤之墓
貞夫人昌原黃氏示+付左

흔희작약(欣喜雀躍)이 바로 이런 것이리라. 같은 해 8월 19일 나는 여름휴가를 이용하여 다시 이곳을 방문하여 탁본을 떠서 돌아왔다. 이렇게 나는 현덕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왜 현덕윤과 같이 청렴결백하고 우수한 인물이 이렇게 일족과 떨어진 곳에 조용히 잠들어 있어야만 했는가. 이것이 이후에도 줄곧 의문으로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이 사실이야말로 당시 조선왕조의 정치풍토와 조선통신사를 비롯한 한·일 양국의 교류실태를 말해주고 있다.

금곡 현덕윤, 1705년(숙종(肅宗) 31년) 30세의 나이로 을유증광시(乙酉增廣試) (왜학(倭學)에 합격한 그가 처음 부산에 출사왜학역관(出使倭學譯官)으로 부임한 것은 1709년(숙종 35년) 때였다. 이 해 일본은 에도막부 5대 쇼군(將軍) 도쿠가와 쓰나요시(徳川綱吉)가 1월 10일에 사망하고, 5월 1일 도쿠가와 이에노부(徳川家宣)가 그 뒤를 이어 제 6대 쇼군으로

취임한 해였다. 쓰시마번[對馬藩]에서는 이러한 2개의 큰 사건을 신속히 조선정부 예조참판에게 전달하기 위해 고부참판사(告訃參判使: 정관, 이구치 나이키[樋口内記])와 고경참판사(告慶參判使: 정관, 스키무라 사부로자에몬[杉村三郎左衛門]) 두 사절을 부산 초량왜관(草梁倭館)에 파견했다. 따라서 현덕윤의 부산 부임은 이 사절을 접대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는 접대를 하는 한 편으로 같은 해 동래부사(東萊府使)로 착임한 권이진(權以鎭)의 지휘 아래 자신의 역소인 출사청(出使廳)(유원관(柔遠館) 청사 16문의 신축을 위해 사비 수백관을 들여가며 적극적으로 완공에 힘썼다. 이것이 조국인 조선의 국위선양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고, 이후에도 부산에 부임할 때마다 개인재산으로 혼별청사(훈도와 별차의 청사, 즉 성신당(誠信堂)과 빈일헌(賓日軒))의 수축(修築)을 위해 노력한 금곡 현덕윤의 평생에 걸친 사업의 시초가 되었다.

이러한 금곡 현덕윤과 쓰시마번의 번유(藩儒), 호슈·아메노모리 토우고로[芳洲·雨森東五郎]와의 만남은 1711년(숙종(肅宗) 37년, 쇼토쿠[正徳] 원년, 신묘), 도쿠가와 이에노부(徳川家宣)의 쇼군 취임을 축하하는 제 8차 조선통신사(정사·조태역(趙泰億))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시작되었다. 금곡은 이때 종사관 이방언(李邦彦)이 승선하는 제 3선에 왜학상통사로 일행과 함께했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신묘년의 조선통신사는 이에노부(家宣)의 6대 쇼군 취임과 함께 그가 고우후[甲府] 번주(藩主) 당시 시강(侍講)이었던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 1657~1726, 이름은 긴미[君美], 통칭 가케유[勘解由]. 시라이시[白石]는 호가유관으로 막각(幕閣)에 참여하여 국서「일본국왕(日本國王)」호의 수정을 시작으로 종래 한·일간 국제관행을 발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평화(교린), 대등(항례), 간소(경비절감)」를 골자(骨子)로 하는 대담한 개혁을 무리하게 단숨에 밀어 부쳤기 때문에 한·일 쌍방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는 사태를 낳았다. 때문에 통신사 일행은 5월 15일에 이미 조정을 떠나 서울을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슈[芳洲]는 이 국서개편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초량왜관으로 파견되었다. 이것은 두드러진 일레이며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계속 몸을 던지며 맞선 것이 조선어에 능통한 주자학자 호슈 아메

노모리 토우고로[芳洲·雨森東五郎]였다.

그러나 조선사절 일행은 귀국 후 이러한 혼란의 책임을 추궁 당하여 정사 조태역(趙泰億)이 관직박탈(官爵剝奪), 문외주방되었고 당하역관(堂下譯官)까지도 장죄(杖罪)를 받는 등 부조리한 제재를 당하게 되었다. 금곡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한 편 18년 후인 1729년(영조(英祖) 52년, 교호[享保] 14년) 호슈[芳洲]는 공작미연한연장교섭을 주요 임무로 하는 재판(교섭역)으로 다시 왜관으로 파견되었다. 이 때 조선측 교섭담당관이 다른 아인 부산훈도 현덕윤이었다. 그러나 이 교섭이 길어져서 1년 반이나 걸린 탓에 불행히도 그는 중앙으로부터 교섭결과에 대한 비난을 받았다. 별차(別差) 한익겸(韓益謙)과 함께 장죄(결곤)를 받게 되고, 상사인 동래부사 민응수(閔應洙)도 감독 책임을 추궁 당하여 파면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앞서 서술한 현덕윤과 장남 태벽(泰璧), 그리고 손자인 상호(商祐)의 묘갈비 모습은 그가 이러한 조선 정부의 불합리한 제재를 받은 것과 관계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측 교섭역을 맡은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는 다음 해 1730년 귀국을 앞 둔 8월 14일, 시인이며 능서가(能書家)였던 금곡 현덕윤의 조국 조선에 대한 충신, 한·일 교린에 바친 성실한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아 지금 알고 있는 유명한 「성신당기(誠信堂記)」를 집필하였다. 여기에는 신묘년(辛卯年) 통신사 당시 호슈[芳洲]의 고뇌와 금곡의 헌신적인 모습이 겹쳐져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금곡에 대한 공감과 감명은 호슈[芳洲] 한 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소대풍요별집보유(昭代風謠別集補遺)』에 따르면 현덕윤의 부산훈도 이임(離任)을 알고 당시 부산 주민들은 그의 이임을 아쉬워하며

待人以誠 接物以仁 功大闕防 惠洽鄉民

【대의】 사람을 대할 때는 성의를 가지고, 일을 처리함에는 진심을 다하고, 조국의 해안방비에 공적이 크며, 또 주민에게는 큰 인정을 베풀었다.



밀양시에 이장되어 새롭게 바뀐 금곡(錦谷) 현덕윤(玄德潤)의 묘갈비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 산릉의 묘지전경

16글자로 새겨진 추사비를 세웠다고 한다. 나는 부산을 방문할 때마다 비석을 계속 찾으려 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부산 여러분께 꼭 이 비석이 발견될 수 있도록 이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부탁하고 싶다.

한편 금곡 현덕윤은 자신이 집필한 그의 당기문(堂記文) 「훈도현덕윤기(訓導玄德潤記)」에서 마지막을 다음과 같은 칠언율시로 매듭지었다.

境連桑域日生東 新構高樓压海雄 許国身輕今白髮 交隣義重只丹衷
天涵雲水蒼茫外 山指蓬瀛隱現中 幸值明時無警報 太平歌頌与人同

【대의】 우리나라는 부상(扶桑)의 섬 일본과 경계를 접하고 있고, 오늘도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른다. 지금 그 일본과의 절충에 해당되는 정사가 새로이 이어졌으니 이는 바다를 제압한 것과 같다. 조국을 위해 이 한 몸 바쳐온 나도 이제는 백발이 되었다. 교린(交隣)의 길은 대단히 중요하며, 진심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머나먼 운수(雲水) 너머에는 봉래의 섬 제주도가 모습을 보였다 숨진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평화로운 세상에 살 수 있었다. 이 평화를 구가하는 마음은 다른 이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금곡이 스스로 자신의 생애를 단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남아있지 않다.

금곡 현덕윤의 묘갈비는 이후 수도 서울의 도시계획 확장과 함께 정리되어 2008년 11월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 산릉에 이장되었다. 지금은 연주(延州) 현 씨 금곡공밀양종친회(錦谷公密陽宗親會) 회장 현성택(玄聖澤)씨와 현덕윤의 차남 현태익(玄泰翼 : 1701~66, 왜학교화자현(倭學教誨資憲)의 직계로, 진주시에 자리 잡은 현병덕(玄炳德)씨 등의 관리로 훌륭하게 보존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조선왕조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금곡 현덕윤이나 강우성(康遇聖)처럼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납치되어 10년간 포로가 되면서도 이후 왜학역관으로 3번의 통신사로 활약하고, 『첩해신어(捷解新語)』를 10권이나 저술하며 조선과 일본의 교린에 힘쓴 중인층 사람들의 활약이 앞으로도 더욱 연구의 대상으로 재조명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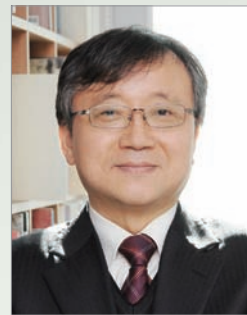
【참고자료】

- 노부하라 오사무[信原修]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와 현덕윤(玄德潤)』 — 조선통신사에 살아있다 「성신의 교류」 아카시[明石] 서점, 2008
- 노부하라 오사무[信原修]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 조선학의 전개와 선사상(禪思想)』 아카시[明石] 서점, 2015

1811년 '대마도 역지통신'과 바꾼 조선 역관의 운명

1811年「対馬易地通信」と引き換えた朝鮮訳官の運命

1811年の通信使は江戸まで行く前例を破り、対馬までにしかなかった「易地通信使」であった。1787年閏白の訃告が伝え、1788年3月の通信使派遣を要請したが、同年10月に派遣を延期するため来た後、20余年ぶりのことであった。20余年間易地通信を推進した人々は訳官であった。この過程で賄賂授受罪と書契偽造罪で訳官の数人が殺され、その家族が流配される初有の事件が1805年に起きた。



김동철 · 부산대 사학과 교수
金東哲 · 釜山大 史学科 教授



1805년 6월 22일 최경이 오다 이쿠고로에게 쓴 12조각 한글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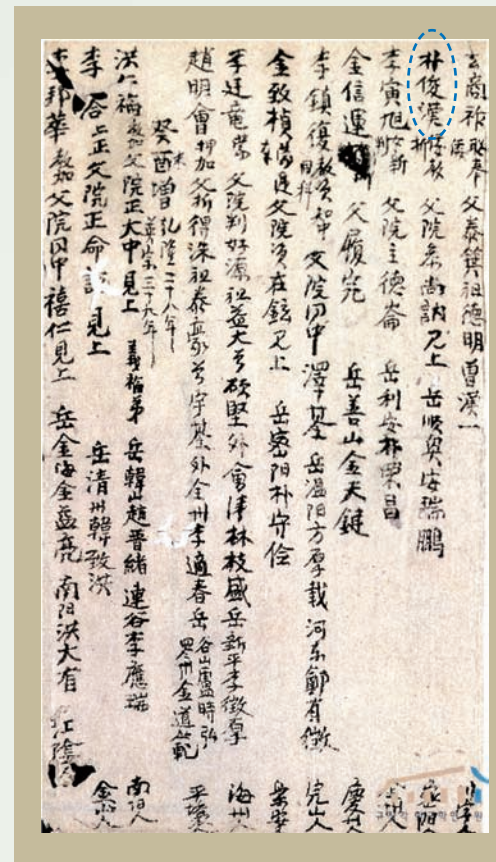
1811년(순조 11) 윤3월 12일, 정사 김이고 등 330여 명을 태운 4척 통신사 배가 부산을 출발하였다. 1763년 통신사(정사 조임)가 파견된 후 거의 50년만에 간 통신사는 마지막 통신사가 되고 말았다. 윤3월 29일 대마도 후츠후(이즈하라)에 도착한 후 50여 일이 지난 5월 22일, 에도에서 온 막부 사절에게 국서를 전달하였다. 1811년 통신사의 목적지는 막부장군이 있는 에도(도쿄)가 아니라 대마도였다. 통신사의 최종 목적지가 바뀐 '역지통신사'였다. 통신사가 대마도까지만 간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바뀐 것은 장소만 아니었다. 장군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마상제도 없었다. 정사·부사·종사관의 삼사에서 정사·부사의 양사로 바뀌었다. 배도 4척으로 줄었다.

지금까지의 통신사 관례를 깨고 '역지'라는 신례(新例)를 만드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통신사가 가는 주된 이유는 막부장군이 바뀐 것을 축하하기 위함이었다. 1786년 8월, 10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하루(徳川家治)가 사망하였다. 1787년 3월과 7월, 부고를 알리는 차왜가 왔다. 1788년 3월 통신사 파견을, 10월에는 파견 연기를 요청하였다.

1780년대에 일본의 경제상황은 극도로 나빠졌다. 1782년 동북지역 냉해, 1783년 아사마(淺間)화산 대폭발, 1786년 전국 대홍수 등으로 대기근이 일어났다. 1786년 1월에는 에도에 대화제가 발생하였다. 1787년 5월에는 쌀값 폭등으로, 에도·오사카 등 30여 도시에서 쌀소동이 일어났다. 크고 작은 농민항쟁도 계속되었다. 노중 마츠다이라 사다노부(松平定信)는 재정 회복을 위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연장선에서 통신사 파견 연기를 지시한 것이다. 그러다가 1791년(정조 15) 12월, 차왜를 보내 역지통신을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갑자기 외교 관례를 바꾸려는 의견에 조선은 쉽게 동의할 수 없었다. 견해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조선도 흉년으로 인한 기근, 군현의 통신사 접대 부담, 통신사가 가져가는 인삼 마련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컸다. 국왕 정조는 생폐(省弊,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 때문에 역지통신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약조에 맞지 않으므로 통신사 파견을 4~5년 미루도록 지시하였다.

'에도 통신'이라는 종전의 명분보다 '대마도 역지통신'이라는 새로운 실리 입장에서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추진을 담당한 것은 역관인 훈도였다. 훈도·별차가 근무하는 임소(任所)는 왜관과는 고개 하나 거리에



1805년 역관 처형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된 박준환의 역과방목



1811년 통신사의 정사 김이교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공개든 비밀이든 언제나 의논할 수 있었다. 「박준한-박치검(가훈도)-최국정-박치검-최경」 순서로 훈도를 계승한 이들이 핵심이었다. 조정의 공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훈도가 공식적으로 역지통신을 진행시킬 수는 없었다. 역관의 보고를 받는 동래부사나 조정 대신도 마찬가지였다. 역관들은 은밀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대마도 중가문고에서 역지통신과 관련, 양국 역관들이 주고받은 ‘한글편지’가 100통 정도 발굴되었다. 편지에는 곳곳에 은밀한 흔적이 보인다.

1787년[또는 1788, 1791년] 이후 20여 년이 지나, 1811년 ‘역지통신’이 실현되기까지 과정에서, 통신사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역관 처형 사건’이 1805년 발생하였다. 통신사 파견 때마다 양국 실무자가 규모·의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협상·조절하였다. 이를 담당하는 역관이 강정역관이다. 1805년 6월, 최국정에 이어 현의순이 강정역관에 임명되었다. 그는 옛 관수(館守)로부터 서계를 위조하면서 역지통신이 추진되었다는 것을 들었다. 즉 1796년 박준한이 문위행으로 대마도에 갔을 때 역지통신이 논의되었는데, 그가 조정에 건의하여 역지통신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하고, 구리 2천근, 각종 물화, 대마도측 문서 등을 받았다는 것이다.

구리 2천 근에 대한 박준한의 말은 달랐다. 1796년 6월 28, 29일 역관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에게 쓴 편지를 보면, ‘훈도로 있을 때 소통사에게 쥐야 하는 1천 냡을 병중에 써서 곤란에 봉착하자, 왜관에 지급할 공목전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해서, 왜관에 있는 구리를 빌려주면 1천 냡을 우선 갚고, 빌린 구리 값은 문위행을 다녀온 후 갚겠다’고 하였다. 구리 2천근을 뇌물로 받았다면 갚는다고 쓸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현의순의 보고를 접한 조정은 1805년 7월 안핵사 윤명렬을 파견하여 조사하게 하였다. 이때 박준한(1799년 1월)과 박치검(1804년 12월)은 이미 병으로 사망한 상태였고, 최경은 예단인삼 문제로 전라도 장흥, 최국정은 강정 문제로 함경도 명천에 유배가 있었다. 두 사람은 동래로 압송되어 조사 받았다.

① 역지통신 때 비용이 필요해서, 왜관측으로부터 1800년 공목(公木)조로 23,000여 냡을 대출받아 7,000냥은 최국정, 16,000여 냡은 최경이 받아왔다. ② 역관 박준한·박치검·최경·최국정·김형우가 1795~1805년 11년간 역지통신 일로 예조·동래부·부산진의 서계를 위조했다. ③ 위조서계는 동래부에 사는 박윤한이 쓰고, 서계의 도장은 상인 김한모가 만들었다. 소통사(사환통사) 김무언도 연루되었다는 것이 안핵사가 조정에 보고한 핵심 내용이다.



1811년 통신사의 상삼관(당상역관) 현의순

그러나 당사자인 최경의 입장은 달랐다. 장흥 유배지에서 역지통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을 들은 최경은 6월 22일 오다 이쿠고로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에는 급박했던 당시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박준한이 역지통신을 주도했고, 1800년 공목조로 받은 돈도 뇌물이 아니라, 일본에서 부탁한 인삼값이며, 자신은 역지통신과 무관하여 무죄임을 조선측 강정역관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다. ‘동생 사이라도 알지 못하게 하고, 바로 불태워 버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12조각의 ‘비밀편지’는 순서대로 맞추어야 내용의 뜻을 아는 퍼즐이었다.

안핵사의 조사보고에는 역지통신 추진을 지시한 조정 대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몇몇 역관이 뇌물을 탐한 개인적 욕심에서 추진하고, 몇몇 동래 지역민이 동조한 사건으로 치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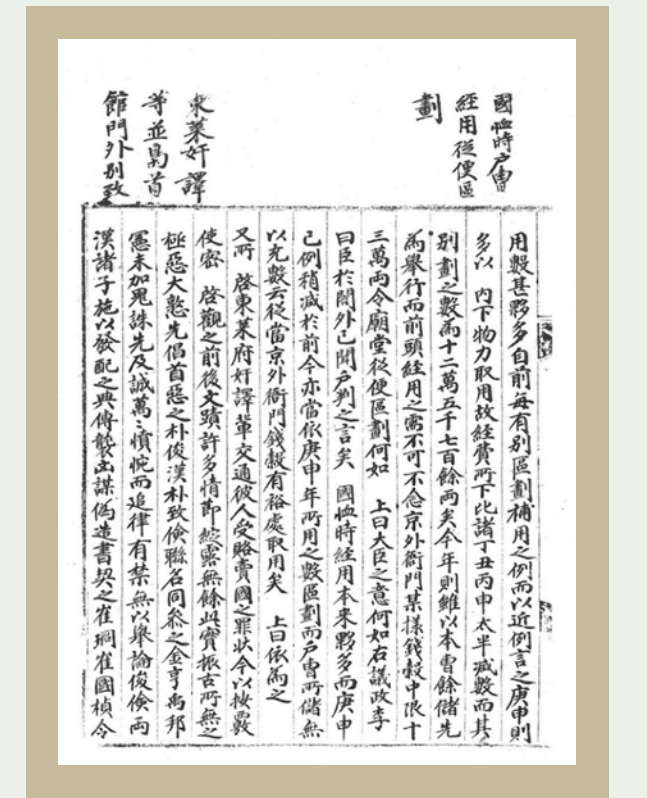
‘역관 처형 사건’은 「① 1805년 9월 6일 최경·최국정·박윤한·김한모는 효수(梟首), ② 김무언은 전라도 강진에 유배, ③ 박준한 세 아들은 평안도 회천, 전라도 영암, 함경도 문천에 유배, ④ 박치검 아들은 전라도 나주에 유배」되면서 마무리되었다.

박준한과 박치검은 역지통신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중도에 부산에서 병사하였다. 최경과 최국정은 뇌물죄·서계위조죄로 사형되었다. 역지통신의 실무에 참여한 사람들이 엄형을 받으면서, 후임 역관인 현식, 현의순, 최석이 이를 추진하였다. 현식은 1802년 12월 훈도, 현의순은 1805년 6월 강정역관, 최석은 1806년 11월 별차가 되었다. 1809년 문위행에 현의순과 최석이, 1811년 역지통신사의 핵심 통역관으로 현식, 현의순, 최석이 파견되었다. 1805년 전후로 왜관에서 활동한 이들 역관들이 역지통신을 완성시킨 것이다.

1805년 9월 역관과 그 가족에게 내려진 가혹한 형벌은 1811년 역지통신 성사를 위한 우여곡절의 한 단면이었다. 그러나 조정은 이들을 개인적 욕망에 사로잡혀, 일본의 속임수에 걸려든 역관으로 간주하고 뇌물수수죄, 서계위조죄로 처단한 것이다. 주모자 역관이 이미 죽어 처벌할 수 없자, 그 아들을 연좌

죄로 처벌하였다. 주모자 박준한은 조정의 공론이 확정되기 전에, 무엇 때문에 역지통신을 주도하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였을까, 막대한 뇌물 유혹의 뒷에 걸린 것일까? 그가 뒷에 걸린 데는 조정 대신의 책임은 없는가, 역지통신 추진을 지시한 조정 대신은 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나? 이들 역관의 운명을 바꾼 조정의 처단은 얼마나 정당할 것일까? 20여 년 만에 성사된 ‘역지통신’의 진실은?

끝으로 미야케 히데토시[三宅英利], 이훈, 이와가타 히사히코[岩方久彦], 나가사키[長崎] 현교육위원회, 양홍숙·김동철 외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쓴 것임을 밝혀 둔다.



「비변사등록」 박준한 등 역관 처벌 기사(1805년 8월 28일)

2015 시모노세키 바칸 마쓰리 참가 후기

2015 下関馬関祭りの参加後記

어린이 통신사

こども通信使



김승현 · 金承炫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본 시모노세키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에 참가하게 되어 마음이 들떴다. 시모노세키행 배를 타기 위해 부두에 도착하니 반가운 친구들이 하나둘 모였다. 친구들과 올해 시모노세키 행사는 어떻게 공연을 해야 할지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배 탑승 시간이 되어 들어갈 때 엄마랑 4박 5일 동안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슬펐다. 옛 조선통신사 일행 중 제일 나이가 어렸던 소동(小童)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수속을 마치고 배에 탑승하였다. 배 안에서 내가 자는 방에는 2층 침대가 있어 너무 좋았다. 마음이 들떠서인지 잠이 안 와서 친구들과 한참 동안 얘기하다가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벌써 일본에 도착해 있었다.

입국 준비 하려고 줄을 섰는데 너무 많이 기다렸다. 드디어 수속을 끝내고 부두에서 시민회관까지는 가까워서 걸어서 갔다. 하지만 큰 짐 가방과 무거운 악기를 들고 가려니 힘들었다.

도착 한 당일(8/22) 오후에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기실에 가서 점심을 먹고 필요한 물품과 옷 등을 준비했다. 행렬 재현을 할 때 내가 입었던 옷은 파란색의 예쁜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옛 조선통신사 일행들이 일본으로 올 때 이런 옷을 입고 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행렬 재현 진행 시 주의사항을 듣고 버스를 타고 행렬 출발 지점까지 이동하였다. 당일 날씨는 너무 맑고 좋았지만, 너무 더웠다. 행렬 시작 전까지 기다리면서 일찍 지쳐버렸다. 그래도 다행히 선생님이 물을 가지고 와서 물을 많이 마시고 다시 힘을 내었다. 막상 행렬이 시작되니 활기가 넘쳐나고 힘이 났다. 거리에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손을 흔들어 주고 행렬이 신기한지 우리 행렬 일행들의 사진도 찍었다. 부산에서 참가한 모든 일행들이 아무 사고 없이 행렬 재현을 마칠 수 있었다.

다음날 오전에는 조선통신사 유적지인 아카마신궁 및 일본 정원과 가라토 시장에 견학을 갔다. 오후에는 시모노세키 시민회관에 '부산·시모노세키 어울림 공연' 행사가 있어 관람을 하였다. 작

년에는 우리도 무대에서 풍물공연을 했는데 올해는 관람만 하게 되었다. 풍물과 일본 무용공연도 재미있었지만 나는 마지막 공연인 동의대학교 태권도 시범이 제일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의 강인함이 느껴졌다. 우리나라의 풍물공연과 전통무용, 태권도를 소개하고 일본의 전통축제 무용을 보면서 이러한 문화교류를 통해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좀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배영초등학교는 키리시마시와 20년이 넘게 교류를 해 오고 있는데 학교와의 교류도 일본과 한국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런 행사에 참가하는 나 자신이 조금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어울림 공연 행사가 끝나고 저녁에는 시모노세키의 '바칸 마쓰리'를 관람하였다. 시모노세키 시민들 2만여 명이 같은 동작의 춤을 약 2시간 동안 반복하면서 행렬하는 것을 보고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그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활짝 웃고 있었으며 그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협동심이 대단하고 멋져 보였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날(8/24) 오전에는 시모노세키 시내 견학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점심은 고기 뷔페에 가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음식을 다 먹고 둘러보니 많이 가져다 놓기만 하고 먹지 않고 남긴 음식들이 곳곳에 보여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점심을 다 먹고 선물을 사기 위해 쇼핑가에 갔다.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다 사고 이제 집에 돌아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는데, 갑자기 태풍 때문에 이틀 동안 배가 결항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다. 그 순간 어디에서 자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제일 걱정되었다. 일단 시민회관에 부산에서 참가한 예술단과 일반참가자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부산문화재단 관계자분들과 시모노세키시 관계자분들의 빠른 대처로 이틀 동안 묵을 숙소로 이동하였다. 갑자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숙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여 숙소를 찾아주셨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 날씨가 아주 흐렸고, 태풍이 더 심하게 몰아쳤다. 유리창이 깨질 정도였다. 전날 묵었던 숙소가 불편

했을까 봐 오후에는 다른 호텔로 숙소를 옮겨 주셨다. 태풍 때문에 계속 도시락을 배달시켜서 먹었는데 저녁 식사는 뷔페에서 먹을 수 있었다. 식당으로 가는 도중에도 비바람 때문에 우산이 뒤집히고 옷이 다 젖었다. 이 많은 인원의 잠자리와 식사를 위해서 끝까지 신경 써주시고 노력해주신 부산문화재단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는 날(8/26)! 다행히 날씨가 맑게 개어 배가 출항 할 수 있다고 했다. 부산으로 가는 배는 저녁에 출발하여 다음 날 아침에 도착하기 때문에 오전에 시간이 남아 호텔 가까운 곳의 신사에 갔다. 신사의 계단은 엄청나게 많았다. 세어보니 100개가 넘었다. 선생님께서 신사는 신이 사는 곳이라서 높은 곳에 만들었다고 설명해주셨다.

점심식사 후, 참가자 100여 명 모두가 시민회관에 모였다. 시민회관에서 각자의 짐을 챙겨 드디어 국제여객터미널로 향했다.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가벼웠다. 돌아오는 배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현재는 기상청에서 날씨 예보를 해주기 때문에 사전에 판단할 수 있지만, 옛 조선통신사가 오갈 때는 태풍이 몰려와도 판단을 하지 못하고 배를 타고 다녔을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으며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조선통신사 일행들 모두가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웠다. 그리고 한일문화 교류를 위해 新조선통신사 일행으로 이번 행사에 참가한 나 자신이 기특하고 뿌듯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부산에 도착하였다. 일주일 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너무 좋았고 반가웠다.

태풍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과 많이 친해진 것 같다. 옛날에 조선통신사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친하게 지냈듯이 앞으로도 이런 문화행사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좀 더 사이좋은 이웃 나라가 되면 좋겠다.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챙겨주신 선생님들과 태풍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엄청나게 고생하신 부산문화재단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올해 6학년인 나는 내년에 졸업할 시기 때문에 앞으로 배영초등학교 학생으로서 시모노세키 바칸 마쓰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많이 아쉽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졸업 후에도 중·고등학교 때 조선통신사 행사로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꼭 참가하고 싶고 어른이 되어서도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에 반드시 참가하고 싶다.

2015 시모노세키 바칸 마쓰리 참가 후기

2015 下関馬関祭りの参加後記

브니엘 예술고등학교

ブニエル芸術高等学校



신정민 · 辛政啟

‘애들아, 우리 일본 공연 갈까?’ 라는 한마디에 들뜨기도 잠깐 여름 내 내 더위와 싸우며 일본공연 준비를 했다. 지칠 때도 있었지만,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배려로 무사히 공연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나는 약 한 달 전 우연히 찾아온 좋은 기회로 한무과 친구들과 시모노세키에서 주최하는 바칸 마쓰리에 참가하게 되었다. 예고에 들어와서 처음 가보는 해외공연이라 친구들과 설레는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했다.

시모노세키까지는 배를 타고 이동했는데 부산문화재단 관계자 분들께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계속 체크해주시면서 배려해주셔서 큰 문제 없이 배 안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면서 시모노세키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많은 참가자들을 인솔 하려면 정신없고



힘들었을 텐데도 늘 밝게 웃어주시면서 우리 학생들 한 명씩 신경 써주신 관계자분들께 아직도 감사하는 마음이 참 크다. 덕분에 타지에 가서도 큰 어려움 없이 친구들과 재미나게 공연을 하고 즐기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무사히 시모노세키에 도착한 우리는 견학도 할 수 있었는데 붉은색 산문이 특징이었던 아카마 신궁에도 들렀고 가라토 시장에서 카문워프 쪽으로 둘러 시모노세키의 특산물이었던 북어 관련 여러 음식도 접해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부산의 바다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던 바다의 풍경을 한눈에 담아올 수 있게 되어 좋았다. 그곳에서 친구들과 남긴 사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다.

오후에는 한·일 참가자 300여 명이 함께 어울려서 시모노세키의 거리를 걸어다니며 행렬 재현을 하였다. 무엇보다 우리를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시고 공연도 굉장히 흥미롭게 봐주시는 시민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에게도 큰 뿌듯함을 안겨 주었던 행사였다. 그리고 무대에만 서보던 우리에게 행렬 재현은 가까운 거리에서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었던 이색적인 경험이기도 했다. 직접 사진을 찍어보기도 하고 장구를 치면서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든 줄도 모르고 행렬을 마칠 수 있었다.

부산·시모노세키 어울림 공연을 하는 날 우리는 여름 내내 준비했던 것들을 무대에서 선보였다. 시모노세키 시민회관에서는 사물놀이팀, 태권도 팀 그리고 일본 여러 팀들과 함께 어우러져 멋진 공연을 펼쳤다. 세대를 불문하고 나라를 불문하고 두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어울릴 수 있다는 게 나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 행사에 참가한 것에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다. 또한 무용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벽찬 시간들이었다. 돌아가려는 아쉬움도 잠깐 태풍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이틀을 더 머물러야 했던 아찔한 순간에도 발 빠르게 대처해준 부산문화재단 측의 배려로 재미난 추억들로 기억될 것 같다. 앞으로 이런 멋진 기회들이 우리 후배들에게도 더 많이 주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일본 공연...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떠났지만 벽찬 감동으로 돌아온 소중한 시간이었다.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멋진 공연으로 무대에 서고 싶다.



2015 시모노세키 바칸 마쓰리 참가 후기

2015 下関馬関祭りの参加後記

일반 참가자

一般参加者



김충명 · 金龍明

조선통신사에 대해 아십니까? 조선통신사는 한일 양국의 평화를 위한 국가 사절단으로 조선 시대에 약 200년간 12번을 일본에 방문했습니다. 동아대학교 일본학과에 재학 중인 저는 과거 일본과의 교류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던 조선통신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올해 5월 부산에서 조선통신사 축제가 개최된다는 소식과 함께 축제 통역팀에서 자원봉사자를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선통신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저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선뜻 자원봉사에 지원하여 뽑혔고, 축제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큰 보람을 느끼게 되어 올해 8월에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열렸던 조선통신사 행렬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노세키로 떠나기 전 조선통신사의 행렬에 참가하여 역사를 재연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에 들었지만,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첫째 날, 시민회관으로 이동하여 옛 조선통신사 그때 그 시절을 재현하기 위해 모두 분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적이자 가장 큰 행사인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태어나서 처음 입어보는 조선 시대 옷과 수염분장을 하었는데 분장을 해주신 선생님이 제가 아기처럼 생겨서 안 어울린다고 지우고 다시 하느라 애를 먹기도 하는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행렬 재현에 대한 안내 및 유의사항을 듣고 행렬장으로 이동~

행렬 출발지점에 모여 지시한 대로 줄을 서고, 출발 세리머니와 함께 시작된 조선통신사 행렬! 시모노세키는 작은 도시였지만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을 보기위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주어 응원을 해줘서 아주 뿌듯했습니다. 아마 조선시대 당시에 조선통신사 일행들이 가는 길에도 일본 사람들이 신기하게 구경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모노세키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바로 5월 축제 때 담당했던 자원봉사팀이 바로 시모노세키시 극단 징징! 초·중·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학생들과 어머니들! 그때 인연이 되어 연락을 계속 주고받던 중, 8월에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에 참가하기 위해 시모노세키에 간다고 하니 행렬할 때 부리나케 달려와 주었습니다.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총명 파이팅'이라고 작은 플래카드까지 준비하여 사진도 찍어주시고 하니 마치 스타가 된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덧붙임 재밌었던 행렬이 끝나고 시모노세키에서 준비해준 저녁 만찬회! 여기서 또 인상 깊었던 것이 저희 부산 일행들을 위해 시모노세키 시장님이 서툴지만 한국어로 연결해주신 것과 테이블마다 찾아다니며 인사하고 악수해주셔서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요했던 첫째 날의 일정이 끝나고 다른 참가자들과 간단히 맥주 한잔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날부터는 시모노세키에 조선통신사의 흔적이 있는 관광지 견학과 부산·시모노세키 어울림 공연을 보고 나니 어느샌가 아쉬움 가득히 부산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앞에서 우려했던 태풍이 저희의 발목을 묶고 이틀간 배가 결항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지만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사람들과 더 지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과 최악의 상황에는 시민회관에서 노숙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부산문화재단과 시모노세키시의 발 빠른 대처로 이틀간의 숙박장소와 식사를 모두 해결할 수 있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아닌 일본에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들었던 생각이 당시 조선통신사들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하였을까와 그 시절엔 지금과 같은 기술이 없으니 돌아가던 도중 태풍을 만나면 위험하지 않았겠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서 있었던 일에 대한 더욱 많은 말을 전하고 싶지만, 날이 썰 정도로 많을 것 같아 이것으로 줄입니다. 이번 조선통신사 행렬에 직접 참여하여 조선통신사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을 알게 된 것과 무엇보다도 이런저런 일로 많은 추억이 생기게 된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 생각합니다.

‘최초의 한류’ 콘텐츠, 마상재馬上才

‘最初の還流’コンテンツ、馬上才



최화수 · 봉생문화재단 부이사장
崔和秀 · 奉生文化財團 副理事長

朝鮮通信使は二匹の馬を日本に連れて行き、江戸の將軍の邸宅などで馬上才を披露した後、朝鮮に帰る時、その馬を贈り物として残した。馬上才は単なる芸でなく、馬上武芸として認められた。馬の上に立ったまま走ったり、馬を乗り換えたり、馬上での逆立ちしたり、馬の脇腹に身を隠すなど、さまざまな技術を駆使した。武芸を重視した日本の將軍はもちろん、庶民まで熱狂したこの馬上才を「最初の韓流コンテンツ」と見る見方もある。

‘누(樓) 앞의 넓은 들에 혁통(革筒)처럼 길을 닦아 / 볼품 좋게 닫는 말에 마상재를 시험하니 / 그중에 박성적(朴聖迪)이 좌우로 말을 뛰어넘고, 송장처럼 말 위에 드러눕는가 하면, 등자 뒤에 몸을 숨기는 재주를 부린다는 것. 마상재 구경꾼 또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했다.

- 김인겸, <일동장유기>

1763년 조선통신사 사행에 서기로 참여한 김인겸(金仁謙)은 영천(永川) 조양각(朝陽閣) 맞은편 들판에서 펼쳐진 마상재(馬上才)를 지켜보며 위와 같이 묘사했다. 마군(馬軍) 박성적(朴聖迪)이 좌우로 말을 뛰어넘고, 송장처럼 말 위에 드러눕는가 하면, 등자 뒤에 몸을 숨기는 재주를 부린다는 것. 마상재 구경꾼 또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했다.

경상도 관찰사는 국왕을 대신하여 일본으로 떠나는 통신사를 위해 조양각에서 전별연을 성대하게 열었다. 사행원과 인근 9개 군(郡) 수령이 참석한 전별연은 이름난 기생들이 재예(才藝)를 겨루는 경연장이기도 했다. 그 무엇보다 뛰어난 볼거리는 달리는 말 위에서 갖가지 묘기를 부리는 마상재였다. 영천에서는 1636년, 1682년, 1711년, 1719년, 1763년 등 다섯 차례 마상재 시연이 있었다.



조선통신사는 말 두 마리를 일본에 데려가 에도(江戸, 도쿄)의 쇼군 저택 등에서 마상재를 선보인 뒤, 조선으로 돌아올 때는 이 말들을 선물했다. 마상재는 단순한 재주가 아닌, 마상무예로 인정받았다. 말 위에 서서 달리기, 말 등 넘나들기, 말 위 물구나무 서기, 말 옆구리에 몸 숨기기 등 다양한 기술을 구사한다. 무예를 중시한 일본의 ‘쇼군’은 물론, 서민까지 열광케 한 이 마상재를 ‘최초의 한류 콘텐츠’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경북 영천시는 전통역사문화 콘텐츠인 이 마상재를 영천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 뿌리내리게 하고자 ‘2015년 문화의 달 정부 기념행사’에 공모하여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6~18일 사흘 동안 영천강변공원 일원에선 ‘조선통신사와 마상재’ 축제가 펼쳐졌다. 국내 마상무예인들로 재연팀을 구성하여 갖가지 기예를 펼쳐 보인 마상재 특별시연을 비롯,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과 ‘조선통신사 통(通)학습전’ 등이 열렸다.



축제 개막일인 16일 때마침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려 서울에서 도쿄까지 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가는 ‘두 바퀴로 달리는 신(新)조선통신사’ 자전거팀 전원이 영천에 도착, 마상재 시연을 지켜보며 탄성을 자아냈다. 한·일 양국에서 각 25명, 모두 50명이 22일 동안 자전거 페달을 밟아 가는 전체 구간 1,900km 가운데 옛새재 라이딩 끝에 461km를 달려온 피로를 마상재를 지켜보며 일시에 날려보낸 것이다. 이들은 또 지친 말에게 물을 먹이고 하루 묵어가던 장수도찰방(長水道察方)도 찾았다.

“말로만 듣던 말의 기예를 직접 눈으로 보니 한·일 우호의 기틀을 다진 조선통신사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 ‘두 바퀴로 달리는 신조선통신사’ 대원으로 참가한 한 일본 대학생의 말이다. 두 바퀴로 달려온 두 나라 대원들이 최초의 한류(韓流)였던 마상재로 하여 하나의 마음으로 이어진 셈이다. 한·일 두 나라가 주고받은 문화교류의 생생한 사료(史料)야말로 한·일 두 나라 사이의 냉기류를 풀어주는 따뜻한 촉매제가 되고 있다.



1,2 경북 영천에서 재연된 마상재 시연 모습
그림 : 마상재의 갖가지 기예(출처 : 『마음의 교류 조선통신사』)



조선통신사역사관 뉴스

조선통신사 발길따라 (영천, 경주)

조선통신사 역사관에서 10월 26일(월) ~ 27일(화) 이틀간 부산 지역 학생 및 시민 30명과 함께 조선통신사 연구 도시 영천과 경주로 탐방을 떠난다. 26일(월) 출발하기 전 조선통신사 역사관 영상실에서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한태문 교수의 “조선통신사의 길(영천, 경주)”이라는 주제로 강좌를 개최한다. 조선통신사에 대한 역사 및 영천과 경주가 조선통신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강좌가 끝나고 바로 영천으로 떠나 문화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조선통신사 유적지인 환벽정, 조양각, 임고서원 등을 탐방한다. 다음날인 27일(화)은 경주의 김유신 장군묘, 동경관, 봉황대 등을 방문하여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진다.

- **일 정** : 10. 26(월) ~ 10. 27(화)
- **대 상** : 부산지역 학생, 시민(30명)
- **장 소** : 조선통신사역사관(강좌)
조선통신사 유적지 영천, 경주(탐방)
- **참가비** : 무료



토요 역사교실 <기특한 아침> · 하반기

조선통신사역사관에서 2015년 3월부터 시작 된 토요 역사교실 <기특한 아침>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다. 상반기는 지난 6월에 모두 끝이 났으며 하반기가 9월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토요 역사교실 이외 다른 여러 행사로 인하여 9월, 10월은 첫째 주와 둘째 주만 진행하였지만 11월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11월 28일 수업을 마지막으로 올해 역사교실은 막을 내린다.

역사관에서 제작한 학습노트를 활용하여 직원과 함께 공부하며 문제를 풀고, 이후에는 구연동화 선생님과 함께 재미 있는 조선통신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 **하반기 일정** : 9. 5(토), 10. 3(토), 10. 10(토)
11. 7(토), 11. 14(토), 11. 21(토), 11. 28(토)
- **대 상** : 부산시내 초등학생
- **시 간** : 10:00~12:00
- **신청방법** : 조선통신사역사관 홈페이지 → 신청계시판 → 신청접수
(※선착순 모집 : www.historytongsinsa.com)
- **모집인원** : 회당 20명



에도막부 쇼군이 선물한 병풍, 조선왕실을 매료시키다

江戸幕府の将軍が贈った屏風、朝鮮王室を魅了させる



박화진 · 부경대 사학과 교수
朴花珍 ·釜慶大 史学科 教授

에도시대 쇄국체제하의 일본에 있어 조선국은 정식 외교를 맺고 있는 유일한 국가였다. 그리하여 에도막부는 조선국에서 파견되어 온 통신사절단에 대해 지극히 융숭한 접대를 하였는데, 에도막부 쇼군과 조선국왕 사이에는 국서 교환 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매우 우수한 예술 공예품들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였다. 일본이 조선국에 선물한 증답품은 대개 병풍을 비롯하여 화선(畫扇,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채)·도검·비단·칠공예품 등 다양한 종류를 들 수 있다. 그 중에 매회 1쌍 이상의 병풍을 보내는 것이 관례였던 모양으로서 조선시대 일본에서 보내어져 온 병풍이 대략 약 200쌍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 그 보존이 확인되고 있는 것은 한국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예전안추초도병풍(刈田雁秋草圖屏風, 6曲1雙, 1748년 작품)》·《목단도병풍(牧丹圖屏風, 6曲1雙, 1762년 작품)》의 2작품 뿐이다. 이 병풍들은 조선국의 기호를 상당히 감안하여 만들어진 매우 화려한 장식화적 경향이 강한 금병풍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모란도 병풍(牧丹圖屏風)》은 화가 가노 바이쇼

모로노부(狩野梅笑師信, 1728~1807년)의 작품으로서 제 11회차 통신사행사에 조선국 왕실에 보내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노 바이쇼(狩野梅笑)는 에도막부 어용화가 후카가와 기마 가노 가문(深川木場狩野家)의 제3대로 태어나 이름은 모로노부(師信)·나가노부(榮信), 호는 바이쇼(梅笑) 등이라 불리었는데, 화가 자필 유래서(由緒書) 속에 《흐르는 물가의 모란·국화도 병풍(牧丹菊流水圖)》 1쌍 이라는 기록이 있으므로 원래는 모란도·국화도 1쌍의 그림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모란도만 전해지고 있다.

이 《모란도 병풍》을 유심히 들여다 보면 금운(金雲, 금으로 된 구름)과 금하(金霞, 금으로 입힌 안개노을) 풍경 속에 굽이쳐 흐르는 물가의 붉고 하얀 모란꽃과 기괴한 암석이 묘사되어 있어 일본 근세시대 대표적 화풍의 하나인 가노우 화파의 장식화적 화풍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병풍 우측 아래의 낙관(落款)에 ‘매소도(梅笑圖) 및 ‘나가노부(榮信)’란 도장이 찍혀져 있는 것으로 보아 바이쇼 모로노부(梅笑師信)란 이름을 사용하기 이전, 나가노부(榮圃)라 칭했던 30대 후반의 작품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출처 : 《모란도 병풍(牧丹圖屏風)》 - 『마음의 교류 조선통신사』, p.170~171